

# 京都基本構想

## 概要版

교토기본구상

개요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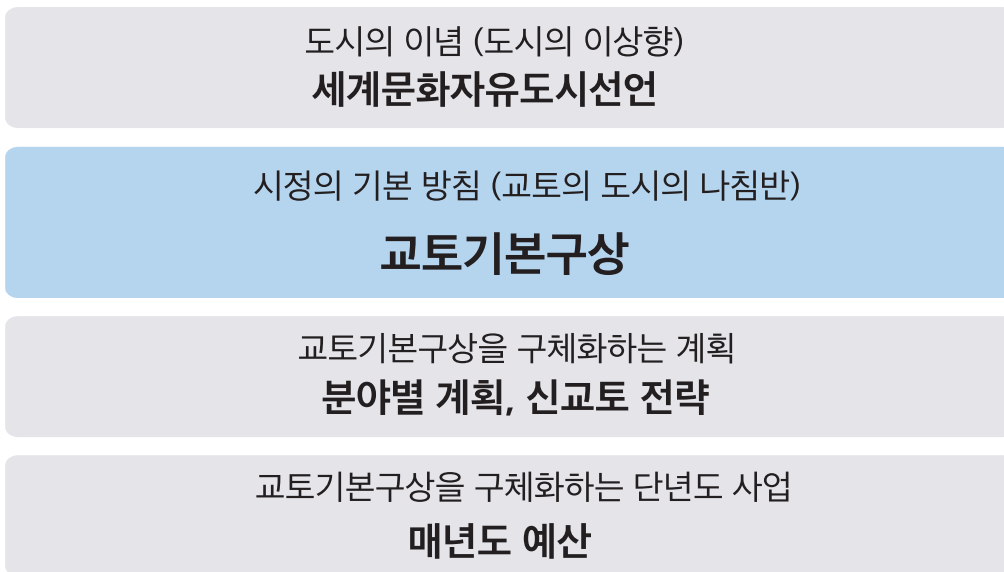
京都市

2025년 12월

# 교토기본구상이란

- 천 년 앞을 내다보며, 향후 25년간(2026년~ 2050년)의 “도시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 교토시의 최상위 도시 이념인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1978년 수립)이 제시하는 “도시의 이상” 실현을 위해, 우리 교토시민이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미래에 계승해야 할 가치와, 지향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교토시의 정책 체계]



## 왜 지금 “도시의 나침반”이 필요한가?

우리의 삶은 사회와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해지는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과 사회적 분열의 가시화 등 지금까지처럼 경제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토에서도 오랜 세월을 걸쳐 이어져 온 생활 문화, 전통적인 거리 풍경, 상업의 방식 등 교토다움을 형성해온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토가 앞으로도 교토다움을 유지하며 천 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도시이기 위해서는, 변화가 격심한 시대 속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미래를 지향할지를 함께 공유하는 “도시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이 제시하는 “이상 도시”로의 길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은 도시에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은 세계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신의 전통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서서 시민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토기본구상은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이 제시하는 길을 바탕으로 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도시는 이상을 필요로 한다" (서문·제4장)
- "세계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3장)
- "자신의 전통에 대한 깊은 성찰" (서문·제2장)
- "시민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제5장)

##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

도시는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 이상이 세계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신의 전통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서서 시민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도시는 세계사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교토를 세계문화자유도시로 선언한다.

세계문화자유도시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종, 종교, 사회 체제의 차이를 넘어 평화 속에서 자유로이 모여 자유로운 문화 교류를 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교토는 오래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해 온 천년의 수도이지만, 오늘날에는 단지 과거의 영광만을 자랑하며 고립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 널리 세계와 문화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뛰어난 문화를 창조하며 영원히 새로운 문화 도시여야 한다. 우리는 교토를 세계 문화 교류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이상의 선언은 쉽고 그 실행은 어렵다. 우리 시민은 여기에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조용히 결의하며 이를 맹세하는 바이다.

1978년 10월 15일 교토시

# 수립 과정

교토시민을 비롯해 시 내외의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약 35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된 “미래공창 팀회의”에서 나온 제안도 반영하여, “종합계획심의회”에서 거듭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로부터 교토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답신을 받아, 이를 토대로 교토시의 시각에서 문장 표현 등을 정밀 검토한 후, 시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 교토기본구상 심사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전원일치로 의결되어 수립되었습니다.

## 시민 의견 모집 시작

2024년 10월 ~ 2025년 9월

별도 웹사이트 (민나노 리소쿄 ideal Kyoto)와 시민이 참가하는 대담 이벤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 내외에서 2만 3천 건이 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미래공창팀 회의의 제안

2025년 2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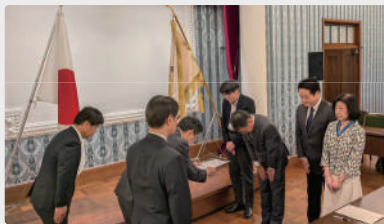
“교토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등 다양한 테마로 거듭 논의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고 심의회에 제안하였습니다.

※ 권말 “참고자료” 참조

## 공개 의견 수렴

2025년 7월 14일 ~ 8월 14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로부터 1,514건의 의견(그 중 약 절반이 20대 이하의 미래를 담당할 세대의 청년)을 받았습니다.



## 종합계획심의회의 답신

2025년 9월 11일

약 1년에 걸쳐 거듭 논의하여 그 결과를 답신으로 정리하여 교토시에 제출하였습니다.

## 교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수립

2025년 12월 11일

“교토기본구상안”에 대해, 시의회(교토기본구상 심사특별위원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수립되었습니다.

## 교토기본구상의 시행

2026년 1월 ~ 2050년 12월

# 교토기본구상의 구성

## 서문

교토가 소중한 여겨온 3가지 가치를 미래에 계승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1장

교토기본구상 수립 배경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이 내세우는 “도시의 이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교토기본구상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2장

교토의 모습

서문이 제시하는 3가지 가치가 키워져 온 역사와 풍토, 그리고 그 가치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계승되어 왔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3장

세계·일본·교토시의  
현재와 미래 과제

세계, 일본, 그리고 교토시가 직면하고 있는, 또한 앞으로 표면화될 수 있는 과제와 위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4장

우리 교토시민이  
지향하는 도시

서문이 제시하는 가치를 미래에 계승하기 위해, 3가지 가치와 연결하는 형태로 9가지의 지향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 제5장

교토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교토시 주민뿐만 아니라 교토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교토시민”으로 여기고, 힘을 합쳐 교토의 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는 것과 그때의 행정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질문

교토기본구상을 계기로, 모두 함께 미래의 교토를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행동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서문

교토가 소중히 여겨온 3가지 가치를 미래에 계승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토기본구상에서는 가장 전달하고 싶은 핵심을 서두의 첫 6행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토시민은 교토시가,  
우리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함을 품게 하는 도시, 그리고,  
자타의 삶을 함께 긍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도시로 계속 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해 나간다.

여기서는 교토가 교토이기 위해, 우리 교토시민이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싶은 3가지 “가치”**를 3가지의 “도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사람들의 삶과 생업 속에서 소중히 계승되어 온 것이며, 교토의 미래에 이어나가겠다는 결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다음의 3가지 짧은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

- 인간은 과거에 의해 살고 미래를 살아간다.
- 인간은 자연에 의해 살고 자연에서 숨쉰다.
- 인간은 공동체에 의해 살고, 공동체로 산다.

##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싶은 3가지 가치

### 1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 恢復 )할 수 있는 도시

신사와 예도 ( 藝 道 ), 공예 ( 工 藝 ), 신사불각, 정원이 현재에 계승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축적 위에 “현재”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축적** 너머에 “미래”가 있다는 시간의 연속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 2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함을 품게 하는 도시

가모가와 ( 鴨 川 ) 와 가쓰라가와 ( 河 川 敷 ) 의 강변이 휴식의 장소가 되고, 지하수가 교토 요리와 주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 속을 살아가는 생명 중 하나**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 3 자타의 삶을 함께 긍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도시

마을회와 등하교 안전 지도, 취미 활동, 작은 가게의 단골, 대학생·유학생처럼, 경제 합리성보다 **살아있는 사람간의 연결**을 소중히 하여,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 제1장 교토기본구상 수립 배경

1978년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 수립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구상의 수립 의무 폐지

2025년

교토기본구상 수립

도시의 이상 실현을 위해 우리 교토시민이  
소중히 여기고 싶은 가치를 제시합니다.

1983년 / 1999년

교토시 기본구상 수립

1999년에 수립한 교토시 기본구상은  
“우리 교토시민”을 주어로 하여, 시민의  
근저에 흐르는 가치관을 “감식안” ,  
“장인정신” , “시도” , “정수” , “환대” ,  
“절약”라는 6가지 특기로  
재확인하였습니다.

## 제2장 교토의 모습

서문이 제시하는 3가지 가치가 키워져 온 역사와 풍토, 그리고 그 가치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계승되어 왔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유구한 자연과의 공생 속에서

교토는 도시를 둘러싼 산들을 수원으로 하는 풍요로운  
하천과 지하수 등의 은혜를 받아 정원과 다도, 주조와 교토  
채소 등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도 자연 속을 살아가는  
생명 중 하나이다”라는 사상을 키워온 도시입니다.  
이 사상은 연중 행사와 음식, 의복 등에 나타나는 사계절의  
계절감으로서 지금도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 역사의 중첩, 문화의 깊이, 사람의 유대감

교토는 전란 등의 위기를 문화의 힘으로 극복하며 역사를  
쌓아, 그 속에서 키운 문화를 사람들의 애착과 노력으로 이어  
온 도시입니다.  
이는 도시의 선조들이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함께 배우고  
서로 가르쳐 왔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 절도와 금지에 기반한 열린 도시의 모습

교토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며 서로 도와온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전통을 지켜나가는 금지와 서로의 입장과 분수를 알고 협동할 수 있는 절도가 키워져 사람들의 신뢰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도와 금지에 기반한 열린 도시 풍토 속에서, 오래된 것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창출해 온 것이 현재의 대학과 연구기관, 첨단기술산업의 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세계 유수의 학업과 예술의 중심지

교토는 학술과 문화·예술 양면에서 세계적으로도 드문 “학예(學藝)의 중심지”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교토의 가치를 체현하는 학술과 문화, 예술, 전통적인 장인의 기술과 제사(祭事), 상업 방식을 함께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연결인 “교토학예중(京都學藝衆)”의 일상적인 노력이며, 가치 계승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세계·일본·교토시의 현재와 미래 과제

세계, 일본, 그리고 교토시가 직면하고 있는, 또한 앞으로 표면화될 수 있는 과제와 위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인구 동태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연결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 자치의 전통과 서로 돕는 정신을 희박하게 만들어 복지와 행사, 문화 보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경제 면에서는 지역의 삶과 문화를 지탱해 온 지방 기업의 담당자가 부족합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에 따라 특정 관광지로 방문객이 집중하고, 전통적인 거리 풍경과 상업 방식의 변용 등 시민 생활과 생업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경 면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일이 증가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와 음식 문화 등을 지탱해 온 소중한 재래종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국제 사회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과 전쟁·분쟁의 발생·지속, 자국 우선주의로의 회귀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제4장

# 우리 교토시민이 지향하는 도시

서문이 제시하는 가치를 미래에 계승하기 위해, 3가지 가치와 연결하는 형태로 9가지의 지향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 제1절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

#### 진정성 (혼마몬, ほんまもん)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며 창조한다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외 사람들과 철차탁마하며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고, 시세에 휩쓸리지 않으며 진정성 (ほんまもん, 혼마몬-관서지방의방언)의 다양한 모습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창조하며 도시의 활력과 기반으로 삼아 나갑니다.

##### 본문 중 키워드

진정성 (혼마몬, ほんまもん),  
불역유행 (不易流行), 감성

#### 세계의 문화와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조한다

시내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과 교류를 거듭하며 세계로 활약의 장을 넓혀 나갈 수 있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인재가 이 도시와 어우러지며 탄생하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 전역·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도시로 만들어 나갑니다.

##### 본문 중 키워드

진취적 기상, 유희심,  
이단과 변경

#### 몰입과 감동이 넘치고, 계속 배울 수 있다

도시 전체를 캠퍼스로 파악하여, 미래를 담당할 아이들과 청년을 비롯해 이 도시 곳곳에 숨 쉬는 역사와 문화, 장인의 기술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다양한 사물을 개성에 따라 추구할 수 있고 누구나 계속 배울 수 있는, 몰입과 감동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갑니다.

##### 본문 중 키워드

몰입, 도시 전체가 캠퍼스

#### 평온과 고요함 속에서 자아와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다

이 도시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조성해 온 평온과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세계를 조용하고 깊이 마주하며 온갖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도시이기 위해 계속 노력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공영에 공헌해 나갑니다.

##### 본문 중 키워드

정밀함, 성찰, 평화와 공영

## 제2절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함을 품게 하는 도시

### 겸허하게 자연과 관계를 이어가는 곳

자연 속을 살아가는 생명 중 하나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역사와 문화를 형성해 온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갑니다.

#### 본문 중 키워드

사계절의 생활, 교토의정서 탄생지로서의 금지

### 재해나 감염병 등의 위기를 유연하게 극복하는 곳

역사 속에서 키워 온 위기를 극복하는 유연함을 유지하고, 다양한 주체와 연계·협력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갑니다.

#### 본문 중 키워드

유연함, 사람의 연결

## 제3절 자타의 삶을 함께 긍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도시

### 다층적이고 느슨한 관계를 이어가는 곳

주민 자치의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 직함이나 입장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계속 이어 나감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살며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갑니다.

#### 본문 중 키워드

윤치 있는 삶의 방식 (수이/이키, 糲), 다층성, 느슨한 연결

### 서로 돕는 일상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곳

서로 지지하고 지지받는 관계 속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각자가 사회와의 연결과 역할을 담당하며 자신답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갑니다.

#### 본문 중 키워드

역할의 순환, 사회와의 연결

###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가치관을 서로 존중하는 곳

성별이나 국적 등에 상관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이 개성을 발휘하고 “나의 자리”와 “나의 역할”을 찾아 나감으로써, 각자가 바라는 삶의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갑니다.

#### 본문 중 키워드

“나의 자리”와 “나의 역할”, 수용

교토시 주민뿐만 아니라 교토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교토시민"으로 여기고, 힘을 합쳐 교토의 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는 것과 그때의 행정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 가치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생업 속에서 소중히 계승되어 온 것이며, 오랫동안 후세에 남기고 싶은 우리 교토시민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의식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토시민은 일상의 삶과 생업 속에서 이 가치를 항상 되돌아보고, 자각하고, 공유하며, 행동으로 연결하고, 미래에 이어가며 9가지 지향하는 도시의 미래상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의적인 시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동해 나간다

교토의 도시에는 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은 물론, 통근·통학하는 사람들부터 대학생·유학생, 관광으로 방문하는 사람들, 주말에 취미나 배움으로 방문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교토의 도시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다의적인 시민(= 0.1 시민)**”으로 파악하여, 함께 교토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동시에 지향하는 도시의 미래상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동해 나가고자 합니다.

## 행정은 공적인 일에 관여하는 시민과 다의적인 시민의 결절점이 된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일로서 공공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행정은 업무 방식을 끊임없이 재검토하여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최대한 낮추고, **공적인 일에 관여하는 시민과 다의적인 시민(= 0.1 시민)을 잇는 중심이 되어**, 함께 대화와 논의를 거듭하며 모두가 협동으로 도시 조성을 담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나갑니다.

그리고,

**교토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나의 자리”와 “나의 역할”을 찾고, 또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동해 나감으로써, 교토의 미래의 기반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 미래를 향한 질문

이 미래를 향한 질문에는 교토기본구상을 계기로 모두가 함께 미래의 교토를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행동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큰 변화의 시대 속에서, 정답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교토다움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대화와 논의를 거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토기본구상에서는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안녕을 관광산업과 어떻게 조화시키고, 전통적인 거리의 풍경과 상거래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의 매력과 활력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적 요인으로 지원·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한편, 지원과 케어를 담당할 인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외면 받지 않는 도시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가.
- 우리의 교토가 이 도시의 천년 역사에 대해 나아가 앞으로 천년의 미래에 대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가.

교토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교토와 관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가치와 매력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소중히 하여 다음 세대에 이어 나갈 것인지를 **항상 계속 물어가는 것**. 그 축적이야말로 교토의 내일을 열어 나갑니다.

**당신의 첫 걸음은 무엇인가요?**

## 미래공창팀 회의 제언

### 「앞으로의 25년, 교토의 지역 조성에서 소중히 하고 싶은 사상·가치관」

미래공창 팀회의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공명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눈 논의를 정리하여 심의회에 제언한 것입니다.

※제4회 심의회 ( 2025년 2월 3일 개최 ) 제출

01

#### 약한 연결도 디자인한 "0.1 시민" 을 많이 만들어 가기

얕게 연결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 이외의 존재와도 관계성을 만들어, 교토의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보아도 좋지 않을까.

02

#### 교토 시민에게 해석·행동을 맡기는 "무계획성"이나 "여백"도 소중히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백"이 느껴지면 좋지 않을까.

03

#### 탈성장·탈경쟁 사회로. 최고뿐만 아니라 최선도 인정하기

높은 것보다 적당한 것, 빠른 것보다 섬세한 것, 완성보다는 미완, 끝없음, 경쟁보다는 각자의 때에 어우러지는, 일원적이지 않은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04

#### 모두가 돌보며 지지하는 따뜻한 시선을 갖기

특히 앞으로를 살아갈 젊은이, 어린이, 그리고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05

#### 초장기적 시각으로 생각하기

미래는 지금과 과거의 축적이며, 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교토 고유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교토기본구상의 전문 및 수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토시 정보관을 참고해 주세요.



전문 페이지  
2차원 코드



수립에 대한 페이지  
2차원 코드